

중전기기 업계의 리더



1955년 비츠로그룹 창업의 맥을 이어받은 비츠로테크는 반세기 동안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중전기기 업계의 리더이다.

선진 외국 기술을 습득하고 국산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기술개발에 매진한 비츠로테크의 노력은 수입에 의존하던 전력기기 제품의 국산화를 실현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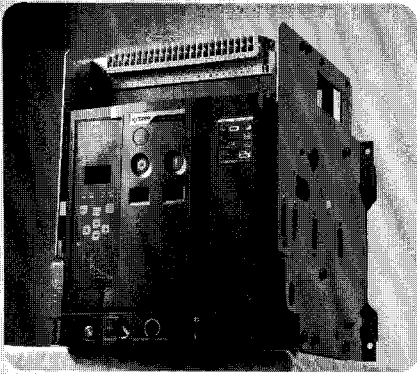
국가 기간산업을 든든히 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로 세계속에 우뚝서는 기업, 비츠로테크가 지향하는 목표이며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지켜 나가야 할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주력 사업영역인 차단기와 개폐기 분야에서는 저압에서 특고압에 이르는 전시리즈의 다양한 전력기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내수 시장뿐 아니라 중국, 미주, 동남아, 유럽 등으로 수출되어 기술 우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세계 전력시장에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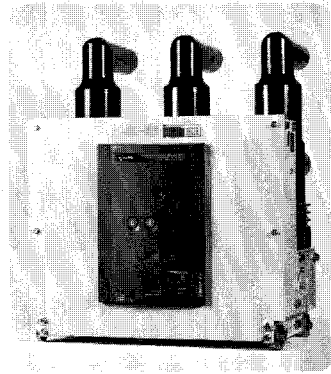
(주)비츠로테크(대표 유병언)는 국내 전력산업의 태동기에 설립되어, 기술적 불모지였던 국내시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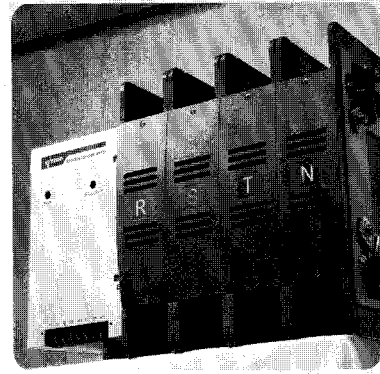
▲ MCCB 배선용차단기



▲ ABC 기중차단기



▲ VCB 진공차단기



▲ ATS 자동절체개폐기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보급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양적, 질적인 향상을 이끌어 왔으며, 38년 기업 역사는 그 자체로 한국 전력산업의 발전사라 할 수 있다.

비츠로테크는 우선 일본 아이치사와 메이텐샤, 미국 LINDSEY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VCB와 ACB를 국산화 했으며,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 눈을 돌려 수출에 박차를 가해 왔고, 국민생활과 산업현장 곳곳에 전기에너지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사명을 갖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창의와 신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통하여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기업경영을 모토로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산업 정책은 IT 기술 접목, 해외시장 진출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비츠로테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응집된 기술적 노하우와 시장에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신규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획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차단기(VCB, ACB, MCB), 개폐기(ATS, VCS, VTS, LBS), 특고/저압 배전반, 제어반(C-GIS, 수배전반, 제어반), SURGE 보호기기(L/A, S/A), 저압기기(MCCB/ELB, SPD)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전기(고압), 3,000억 저압기기, 우주항공분야 로켓추진장치 등 폭넓게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원자력 품질, 우주항공분야, ISO9001, 14001, KS, UL, KEPI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을 획득해 품질경쟁력 5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KEA

기획홍보처 홍보팀 마효권 부장



C E O _ i n t e r v i e w

(주)비츠로테크 유병언 대표이사

“가족같은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

Q. 귀사의 제품 기술은 기존의 기술에 비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요.

A. 수배전반에 들어가는 전력기기에는 절연기술, 소호매질의 선택, 전기적 해석 및 제어기술과 이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기계적 구조설계 등 모든 방향의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 전력기기인데 이 모든 부분에는 자체 기술력과 관계 자회사,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공 소호 매질인 진공인터럽터(VI)는 국내 3개사만이 제작하고 있는데(LS산전, 현대 중공업, 비츠로테크) 이 진공 인터럽터의 기술을 응용하여 우주산업분야 및 게이트 밸브 등에 진출하고 있고 절연매질에는 기존의 고무 및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열경화에 강한 폴리머 콘크리트(유, 무기질 혼합물)라는 절연 매질을 갖고 있어 실내외에 강한 내구성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Q. 제품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A. 당초 핵심 기술인 진공 인터럽터를 개발할 때 국내의 모든 기업들이 비웃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산에 의존한다면 국내 기술은 진보를 하지 못할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외산에 의존만 하여 더 진보한 제품과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예측하여 과감히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이슈사항인 나로호에 관련된 우주산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진공인터럽터를 개발하게 된다면 제품의 사이즈의 축소와 선행 산업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을 갖지 못한 기업들은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귀사에서 또 다른 기술개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A. 현재 비츠로테크에서는 전기, 전자, 기계, 화학에 기반한 절연 매질에 관한 모든 기술의 통폐합 기술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핸드폰이 전화기인지 MP3인지, 카메라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것 처럼 모든 전력기기들은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업군인 디지털 보호 계전기(전자분야), 기존의 단품기기들(전기, 기계, 화학)의 컨버전스에 대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Q. 귀사가 다른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A 끊임없이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남들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당사가 필요하고 미래에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히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의 인력 구성도 연구 인력이 3~40%에 있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족처럼 전 직원들이 가족과 같은 생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들에게도 존재하는 부분이지만 외부에서 온 경력사원이든 외부의 인사들이 당사의 조직을 보고 하는 말이건 당사의 조직 문화 즉, 가족과 같은 조직 문화에 큰 부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기에 기술개발과 기타 조직에 맞는 업무와 성향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비츠로테크 고유의 기업문화, 가족과 같은 기업문화가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른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직장 다닐 맛 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 내년 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며, 내년 귀사의 목표는.

A 정량적으로는 1,000억 매출 돌파이며 정성적, 전략적으로는 현재 당사가 취하고 있는 제품군에 대한 확실한 시장 이미지 고취입니다. 이 말 뜻은 현재 당사의 제품군이 대기업과 같은 제품군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제품군이 대기업과 같은 매출을 올리려면 모든 제품군에 대하여 하나의 회사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실제로 다른 중소기업들은 당사의 몇 개의 품목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제품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에 안정성과 진출에 대하여 매진하려 합니다.

